

한국의 TTA 아닌 전 세계 표준화기구로 만들 터

국내·외 교류·협력 공조체제 강화...“TTA 서비스 공간으로 만들 것”

“2000년 ITU-T 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 국제표준화기구에 의장으로 활동하는 한국인이 단 한명이었는데, 의장을 추가 배출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당시 주어진 미션이었죠. 그 때 한국인 의장이 6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현재는 의장으로 활동하는 한국인이 141개 기구에 103명에 달합니다. 이제는 한국의 TTA가 아닌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TTA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지난 1월 제8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회장에 취임한 김원식 회장은 표준화업무를 담당했던 과거를 회상하며 올해 TTA가 세계 표준화기구로서 거듭나는 비전을 제시하겠다고며 이같이 말했다.

김원식 회장은 “글로벌 시대의 표준선점은 곧 시장 선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표준선진국에서는 국제표준 획득을 자국기술의 국제적 확산과 세계시장 지배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TTA 또한 이러한 환경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표준화전략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할 예정입니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취임 후 한 달여 남짓한 시간 동안 TTA를 국제표준리더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 전략을 구상했다며 그 일단을 소개했다.

우선 김 회장은 TTA가 국제표준수용자에서 국제표준리더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국내·외 환경에 따른 적시 표준 개발, 국제표준선도가 가능한 핵심 표준대상항목 발굴 및 표준화 추진, 공식표준화기구 및 사실표준화기구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표준전문가 육성이라는 기본 전략에 맞춰 움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TTA가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51개 포커스 그룹이 활동하는 ‘정보통신표준화위원회’, 30여개의 ‘IT표준화 전략포럼’, 270여명에 이르는 ‘IT국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회장
김원식



제표준전문가' 등 국내 정보통신 표준화의 핵심 3대 자원의 국내·외 상호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해 국내표준화와 국제표준화가 동일 사이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공조체계도 더욱 견고히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있는 IP-TV, IMT-Advanced, 와이브로, 모바일 RFID, 차세대 웹 등 국내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TTA 표준개발을 더욱 활발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휴대폰 외부 단자 통일안과 같은 이용자 편익을 위한 표준화, IP-TV·위성방송·텔레매틱스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재난통신·방송 표준화와 같은 공익증진을 위한 표준화, 와이브로 에볼루션·무선인식과 같은 선도 기술 표준화 등 표준화 활동을 세분화해 그 성과도 꼼꼼히 챙기겠다는 것이 김 회장의 생각이다.

김 회장은 "표준화뿐만 아니라 TTA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시험인증 분야도 산업체가 필요한 시점에 적시에 시험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산업 활성화에 일조할 것입니다. 블루투스 등 기존 시험인프라 외에 HSDPA, 임베디드SW, W-USB 등 총 72종에 달하는 핵심 IT기술 분야에 대한 시험인프라 구축이 곧 완료될 예정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 최초의 국내 기술인 DMB, 와이브로 분야에 대한 시험인증 준비도 착실히 준비해 본격적인 시험인증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라며 "와이브로의 경우 국제 시험장비가 없어 현재 직원 5명을 스페인에 파견해 세계 최초의 시험장비 검증 작업을 하고 있으며 곧 세계 최초로 와이브로 단말기 시험인증이 가능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회장은 국제적 표준화기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부 역량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하며 올해 TTA 업무를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 자동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사실 업무의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 자동화 등은 기업 어느 곳에서나 경영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지만, TTA가 국내 표준화기구가 아닌 세계적 표준화기구로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성실성과 정직성으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TTA는 남이 모르는 것을 하는 곳도 아니고 표준·기술개발에만 전념하는 대학의 상이탑도 아닙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적합한 기준을 만드는 곳이 TTA 입니다.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고 국내·외 모든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오랜 공직 생활로 대민 서비스 마인드가 몸에 밴 그가 TTA를 세계 표준화기구이자 고객서비스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단단히 버리고 있다. 

